정법을 닦아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리라

서은사1

앙산 혜적선사의 행화도량인 서은사(栖隱寺)는 강서성 의춘시에서 서남쪽으로 30km 거리에 있다. 의춘(宜春)에서 1박을 한 일행은 또 다시 순례의 여정을 서두른다. 의춘은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곳으로 종문불법(宗門佛法)을 성취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운 땅이라고 한다.

선종 오가(五家) 중에 임제종은 바로 의춘 황벽산(黃檗山)에서 싹을 틔웠고, 조동종은 의춘 동산(洞山)에서 이삭을 드러냈으며, 위앙종은 의춘 앙산(仰山)에서 열매를 맺은바, 의춘은 선종의 성지라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다. 현재 위앙종의 10세(世)이자, 중국불교협회 회장인 일성(一誠) 노화상도 '의춘은 선종의 성지'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앙산은 연화분지(蓮花盆地)의 형상으로 운봉(雲峰)과 사자암(獅子巖), 백운산과 서당산(書堂山) 등의 빼어난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봉인 해발 1035m의 운봉에 쌓인 앙산적설(仰山積雪)은 예나 지금이나 순례자들의 마음을 깊이 정화시켜왔다고 한다.


앙산 혜적 선사에 의해 위앙종이 열매를 맺은 서은사. 앙산 선사의 오랫동안 교화를 펼쳐 일명 앙산사라고도 불린다.

탐원 스님에게 이름을 얻고 위산 스님에게 경지를 얻다

앙산 혜적선사는 광동성 소주(韶州) 회화(懷化) 출신으로 속성은 섭씨(葉氏). 9살에 광주(廣州) 화안사(和安寺)로 가 통(通)화상에게 출가하였다. 14살에 부모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스님은 손가락 두 개를 자른 뒤 꿇어앉아 "정법을 닦아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고 말하니 부모가 출가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은 통 화상에게 다시 머리를 깎은 뒤 행각을 떠났다. 처음에는 남악 혜충을 시봉했던 탐원 스님을 참방하여 이름을 얻었고, 이후 위산선사 회상에서 경지를 얻었다. 일찍이 탐원 스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었다.


법당에 엎드려 앙산 혜적 선사의 선풍을 기리는 스님들.

"혜충 스님께서 당시에 육대조사(六代祖師)의 원상(圓相) 97개를 모두 전해 받아다가 나에게 주시며 당부하시기를 '내가 죽은 뒤 30년이 되면 남방에서 한 사미가 찾아와 이 원상의 가르침을 크게 일으키리니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이제 이 원상을 그대에게 줄 터이니 잘 받들어 지니도록 하게나."

그러나 앙산은 탐원 스님에게 받은 원상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어느 날 탐원 스님이 앙산을 불러 말했다.

"지난번에 준 원상들은 깊숙이 잘 간직해야 하네."

"그때 보고 나서 바로 불태워버렸습니다."

탐원 스님이 놀라면서 무엇 때문에 그 원상들을 불태웠느냐고 묻자 앙산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저는 한 번 보고 원상의 뜻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것이지 원상에 집착할 게 뭐 있습니까"

탐원 스님은 앙산의 그릇을 인정은 했지만 그래도 원상이 필요한 뒷사람을 걱정하자, 앙산은 원상 한 개를 그려서 바쳤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곳이 없었다. 이후 앙산은 탐원 스님 곁을 떠나 위산을 찾아뵀다. 위산 스님이 물었다.

"너는 주인이 있는 사미냐, 주인이 없는 사미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에 앙산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 섰다. 그런 뒤, 앙산이 도리어 물었다.

"어디가 참된 부처가 계시는 곳입니까."

"생각이 있는 동시에 없기도 한 묘함으로 끝없이 타오르는 신령한 불꽃을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이 다하여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 성품과 형상이 항상하고 사(事)와 이(理)가 둘이 아니어서 참된 부처가 여여하리라."

앙산은 순간 단박 깨달은 뒤 위산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15년 동안 시봉했다.

〈앙산록〉을 근거로 삼아 보니 앙산이 위산을 처음 뵌 때는 회창법란 이전인 위산이 68세인 838년이 아닌가 싶다. 위산이 입적할 때까지 15년을 시봉했다고 하니 역산해 보면 838년, 앙산의 나이 32세가 되는 것이다. 수불 스님은 앙산의 성품을 얘기하시면서 기개가 있고, 천재성을 느끼게 하는 면이 다분하다고 평한다.

"탐원 스님도 혜충 국사라는 큰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분인데 앙산을 쉽게 인가해 주었겠습니까. 어쨌든 탐원 스님은 혜충 국사에게 받은 원상 97개를 앙산 스님에게 주게 됩니다. 사미였던 앙산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앙산은 원상들을 다 불태웁니다. 탐원 스님이 그걸 없애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앙산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이 속에 다 있다는 듯이 원상 하나를 그대로 그려보였다는 것입니다. 앙산의 기개와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위산은 앙산의 그런 면을 탐원 스님보다 더 아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탐원 스님을 만나 선리(禪理)를 터득한 뒤 위산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고서 공부에 힘을 받은 앙산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당돌함이라고 평한다.

"〈열반경〉에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되며, 마구니 말이 얼마나 되냐는 위산 스님의 물음에 앙산은 지체없이 당돌하게 온통 마구니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껄껄 웃으며 '앞으로는 너를 어찌해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스님은 앙산의 당돌함이 발현된 선화를 두어 개 더 소개해 주신다.

여름 안거 끝에 앙산이 위산 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위산 스님이 말했다.

"너는 한여름 내내 나를 보러 오지 않더군. 아래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한 뙈기 새밭을 매다가 종자 한 움큼을 얻었습니다."

"금년 여름을 헛되게 보내지는 않았군."

이번에는 앙산이 되받아치듯 위산 스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한여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이에 위산 스님은 '뭐 그런 걸 묻나. 내 할 일 했어'라는 말투로 말했다.

"낮에는 밥 먹고 밤에는 잠을 잤다."

"스님께서도 금년 여름을 헛되게 보내진 않으셨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득 앙산이 죄송한 생각이 들어 혀를 날름 내밀었다. 그러자 위산 스님이 말했다.

"혜적아,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상하게 하느냐!"

앙산이 동평(東平) 스님 회상에 머물 때였다. 위산 스님이 동편 스님 편에 편지와 거울을 보내왔다. 앙산은 상당법문 중에 거울 꺼내 들고 대중에게 물었다.

"말해 보아라. 이것이 위산 스님의 거울인지 동편 스님의 거울인지를. 동평 스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산 스님이 보내온 것인데. 반대로 위산 스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동편 스님의 손아귀에 있는데. 바로 말한다면 깨뜨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깨뜨려 버리겠다."

대중 가운데 아무 대꾸가 없자 앙산은 '올해 농사는 신통치 않구나. 인편이 있으면 거울을 잘 받았다고 전해 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던져 깨뜨리고 법상에서 내려왔다. 유리거울이라면 박살났을 것이고, 구리로 된 동경(銅鏡)이라면 찌그러졌을 터이다. 어쨌든 앙산은 스승 위산 스님이 보내준 거울이므로 오래 간직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일 텐데, 자신의 강개한 성정대로 깨버렸던 것이다.

석두 스님의 가풍은 금방 앙산 스님의 가풍은 잡화상

한편, 앙산은 법상에 올라 대중들에게 자신의 가풍을 드러낸 법문을 자주 한바 '석두(石頭)는 금방(金房)이지만 나는 잡화상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 광채를 돌이켜 살필지언정 내 말을 기억하려 들지 말라. 끝없는 예부터 밝음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허망을 좇는 뿌리가 깊어서 단박 망상을 없애기 어려운 그대들이 가엾구나. 거짓으로 방편을 베풀어 티끌같이 많은 겁 동안 쌓인 그대들의 굵은 알음알이를 뽑아주려 하노니, 마치 단풍잎으로 우는 아기를 달래는 것과 같도다. 어떤 사람은 백 가지 재물과 금과 보화를 한 자리에 섞어 놓고 찾아온 사람의 정도에 맞추어 팔기도 하지. 나 역시도 그렇지. 석두(石頭)스님은 금방(金房)이지만 나는 잡화상이거든. 찾아온 이가 잡화를 찾으면 잡화를 주고, 금을 찾으면 금을 주니까."

수불 스님은 선어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연표를 대조하라고 당부하신다. 그래야만 그때 상황을 잘 복기할 수 있고, 당시 스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옳은 말씀이다. 연표를 보면 위산과 앙산은 36살의 차이가 나는데, 이를 참고해서 〈위앙록〉을 읽게 되면 위산이 아들 같은 앙산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고, 어느 자리에서나 주눅 들지 않는 앙산의 저돌적인 기개가 어떤 모습인지를 실감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윽고 버스가 마을 앞 좁은 농로를 겨우 지나 서은사 주차장에서 멈춘다. 우리가 '앙산사'라고 부르는 절이다. 서은사의 옛 땅이 4000여 무(畝)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협소해 보인다. 수불 스님도 절 앞의 넓지 않은 논밭을 둘러보더니 '터를 보니 위앙종이 가장 먼저 끊길 만했군' 하신다. 선객과 시인묵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앙산적설도 이른 계절 때문인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온 산을 뒤덮고 있는 대나무들이 장관이다. 내가 "대나무들이 합장하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자 옆에 서 있던 각정 스님이 한 마디 하신다.

"불보살님들이 대나무로 화현한 것 같습니다."

허술한 산문을 들어서자, 앙산 스님이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눈에 띄지만 앙산의 흔적은 느낄 수가 없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결혼하라는 부모를 설득하여 출가한 앙산의 기개와 스승에게 물려받은 귀한 원상들을 다 외우고 태워버린 천재성과 당돌함도 만날 길이 없다. 불사 중인 절은 어딘지 힘에 부친 듯 지쳐 있고 중국 스님들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석가(小釋迦)로 불리던 앙산 선사가 회창 연간(842)에 개산하여 기라성 같은 고승들을 배출하였으니, 그 선풍(禪風)이 어느 인연을 만나 다시 회오리바람을 일으킬지는 눈 밝은 사람만이 알 것 같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